

‘F4’의 정책공조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새해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낱말은 ‘위기’ ‘불확실성’ ‘변동성’ ‘침체’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물론 개인과 기업도 움츠린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대부분의 기관이 1%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기획재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의 예측치가 그렇다. 정부가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처음이다.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낮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기상도도 ‘흐림’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최고수준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가운데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불과 1년새 이자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 물가와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희망은 없는 것일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인 ‘F4’가 워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F4의 ‘F’는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Finance)로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뜻한다. 그는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금융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에 높은 과고가 예상되지만 절묘한 정책 공조를 통해 뛰어 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 난다. F4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F4가운데 한 명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정교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물가와 금리 정책을 펴는 한은이 손발을 맞춰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독립성’을 앞세워 정부와 거리를 뒀던 한은 총재와는 결이 다르다.

난세 속에 금융은 경제 활력의 ‘혈액’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 남지 못한다. 추 부총리가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이끌고 있는 F4의 상황인식은 일치한다. 정책공조에 대한 협업 의지도 높다. 결국은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잠재력이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아랫목 뿐만 아니라 웃목까지 온기를 느끼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수세적인 태도보다 공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비즈니스가 답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미운털’ 굴레서 벗어나야



김 정 산
(금융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OO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의 통장 비밀번호가 전부 노출이 돼 전화를 드렸습니다. OO지점에서 비밀번호 분실하지 않으셨나요?”

과거 한 코미디 방송에서 나온 대사다. 중국동포가 저축은행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내용을 다룬다. 보이스피싱범의 어설픔 언변 때문에 때면 범행에 실패하는 내용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관객들은 ‘기가 막힌 현실 고증’이라며 감탄을 했다. 저축은행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이나 보이스피싱범이 사칭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

‘계묘년’ 새해가 밝자마자 저축은행업

계가 시끄럽다. 일부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년부터 찬물을 확 끼얹고 시작한다. 아울러 지난해 저축은행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이 수 차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빈틈을 노려 횡령을 저질렀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공들였던 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저축은행이 줄도산하자 불안감을 느낀 예금주들이 ‘뱅크런’이 일어났다. 예금주들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토끼의 해였다. ‘신묘년’을 지나 ‘계묘년’이 다가왔다. 여전히 ‘신뢰의 탐’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변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2금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법 사금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지인들에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애써 해명한다.

한 번 박힌 미운털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미운 행동은 크게 보이고 선행은 한없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미운털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만 같다. 고금리 예금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식 개선 속도가 더디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기관임에도 미운털이 콕 박혀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디지털 전환을 속제로 꼽고 있다.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우선이다. 디지털전환을 통한 이미지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있다. 48년생 이혼이 결국 비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60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2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84년생 지금부터 저축으로 검박하게 생활을.



37년생 카페에 가서 커피마시며 친구를 만난다. 49년생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 61년생 더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73년생 급하게 서둘러서 후회하 막급이다. 85년생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독해력이 뛰어나다던데.



38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해라. 50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62년생 자녀와 불화는 대화로 풀어라. 74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 86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39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 5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63년생 두루 배풀면 일이 순조롭게 해결. 75년생 부드러움 보다 강하게 나가라. 87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는 천천히 챙겨라.



40년생 아날로그에 끌리는 음악 감상을. 52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 64년생 직장에 변동수가 있으니 마음을 잡을 때. 76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능력도 최고조이라 행복. 88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날.



41년생 치과치료는 늦추지 말고 바로 받아라. 53년생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라. 65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 77년생 조직의 뜻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기보다는. 89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들의 거래가 성공적.



42년생 모든 일은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54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66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78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90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선풍기 켜놓는다.



43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55년생 이성유혹이 많은 날이니 잘못하면 망신 수. 67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하라. 79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91년생 외출을 하면서 행운이 따른다.



44년생 제사를 지내고나니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지혜를 얻는다. 56년생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좌우된다는데. 68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 이루어진다. 80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다. 92년생 막혔던 자금이 풀리기 시작.



45년생 회의에서 객관성은 떨어지더라도 나서지 말도록. 57년생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69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을 본다. 81년생 금전 운이 약간히 돈거래는 신중. 93년생 능력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46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58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70년생 양보다 질을 따져보고 결정. 82년생 지출이 많으니 재할용으로 아껴라. 94년생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면 활동을 하도록.



47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59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1년생 공과 사를 올바르게 구분. 83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밤길을 가니 봐주는 사람이 없다. 95년생 학문에는 불충분한 학설도 있게 마련이니.



김상회의四季

어머니 같은 햇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사분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어머니를 여의고 삼 년이 지났는데 천도재를 지내고 싶다고, 이유를 물어보니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을 글썽인다. 첫째 아이가 중학생인데 사춘기를 겪는지 본인에게 심한 말을 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도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느냐며 책가방을 던지더라. 아이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데 불현듯 그 나이 때 자기 모습이 생각났다. 자기도 중학교 때 어머니에게 비슷한 말을 한 게 떠올랐다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후다닥 치른 장례가 자주 마음에 걸렸다.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천도재를 드리며 어머니 영혼이 극락에서 편안하기를 기도하고 싶단다. 여사분은 너무 늦은 천도재가 아닐까 우려했지만 어떤 일이 있든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어머니는 생사生死 언제든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줄 것이다.

사람들은 젊어서는 어머니의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쉽게 기억에서 잊어버린다.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에 희망을 품는다. 살림살이가 좋아지길 아꼈던 몸이 회복되길 안 좋은 일이 사라지길 복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희망을 품는다. 모두에게 따뜻한 봄 햇살이 인생에 가득 차기를 바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햇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봄 햇살처럼 자식들을 감싸줬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오래도록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건 자기가 나이 들고 난 다음이다. 새해에는 평소보다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머니 같은 봄 햇살이 내 인생에 가득찰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8		6		7
			6	7			8
9		4		5			
		5	7			3	
						4	
6				2			9
					6		
1		9				7	

			6	3		1	2		
	3			5	6	2			9
	7	2					3	6	
		8					4		
	6	9					1	5	
	8			7	9	3			1
			7	4			5	9	

정답

9	5	2	8	4	7	6	3	1
6	8	3	9	1	6	2	7	5
6	1	7	2	3	5	8	4	9
9	7	5	6	8	3	4	1	2
1	6	4	7	9	1	5	8	3
2	8	4	5	1	7	9	6	
8	4	6	1	9	2	5	7	
7	9	1	2	6	4	9	2	8
1	2	9	5	7	8	1	6	4

2	2	9	9	1	8	4	7	6
4	8	6	9	2	7	1	1	9
7	1	9	4	6	2	5	8	3
8	9	1	2	7	2	6	9	4
2	7	6	4	9	8	9	1	
6	9	4	8	5	1	2	2	7
1	6	2	2	9	9	7	4	8
5	7	2	1	8	4	9	6	2
9	4	8	7	2	6	1	2	5

과·하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